

『열하일기』 ‘보유(補遺)’의 탐색*

김 명 호**

Ⅰ 국문초록 Ⅰ

『열하일기』의 이본은 현재 수십 종이 전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정본에 가장 가까운 『연암집』 별집계(別集系) 이본들은 그 목록에서 ‘보유(補遺)’라는 제목으로 6편의 글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열하일기』의 현재의 텍스트에는 6편의 글이 누락되어 있으며 이 글들을 장차 찾아내어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 6편의 ‘보유’ 중 「금요소초」는 실은 『열하일기』의 다른 많은 이본들에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천애결린집」, 「양매시화」, 「열하궁전기」, 「열하태학기」, 「단루필담」 등 나머지 5편의 글들은 지금까지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었다. 본 논문은 새로운 자료들에 의거하여, 『열하일기』 중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 5편의 글들의 행방을 탐색해 본 것이다.

단국대 연민문고 소장 『양매시화』는 바로 「양매시화」의 초고로 판단된다. 그리고 단국대 연민문고 소장 『연암산고』(2)에는 「열하태학기」와 「천애결린집」의 초고가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박지원은 원래 「양매시화」를 비롯한 5편의 글들을 『열하일기』에 수록하려고 기획했으나, 결국에는 이를 포기하고 그 글들의 일부 내용만 『열하일기』에 포함하는 데 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박지원, 열하일기, 양매시화, 열하태학기, 천애결린집

Ⅰ 목 차 Ⅰ

- | | |
|-----------------------|---------------------|
| I. ‘보유’ 6편의 행방 | IV. 「열하궁전기」와 「단루필담」 |
| II. 「양매시화」 | V. 잠정적 결론 |
| III. 「열하태학기」와 「천애결린집」 | |

* 이 논문은 2012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의 학술논문 게재지원을 받았음.

**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 / yedong1807@snu.ac.kr

I. ‘보유’ 6편의 행방

현전하는 『열하일기』의 이본 수십 중 가운데 『열하일기』가 『연암집』의 일부 즉 ‘별집(別集)’으로 편성되어 있는 필사본들은 체제와 내용 면에서 정본에 가장 가까운 이본이라 할 수 있다.¹⁾ 이러한 『연암집』 별집계 『열하일기』 이본들(이하 ‘별집계 이본’으로 약칭함)은 여타 이본들에서는 하나의 편(篇)으로 독립되어 있던 「희본명목(戲本名目)」을 「희본명목기(戲本名目記)」라고 제목을 고쳐 「산장잡기(山莊雜記)」편에 포함시키고, 기존의 「금료소초(金蓼小抄)」편은 『열하일기』에서 제거하였다. 그리하여 여타 이본들에서는 전 26편(26권)이던 『열하일기』를 전 24편(24권)으로 정비하고, 「도강록(渡江錄)」부터 「동란섭필(銅蘭涉筆)」까지 편차를 확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별집계 이본들은 「열하일기총목(總目)」 끝에 “보유”라 하여, 현재는 전하지 않으나 장차 찾아내어 보완해야 할 글 6편의 제목을 소개하였다. 『열하일기』 ‘보유’ 6편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천애결린집(天涯結隣集)」, 「양매시화(楊梅詩話)」, 「금료소초」, 「열하궁전기(熱河宮殿記)」, 「열하태하기(熱河太學記)」, 「단루필담(段樓筆談)」²⁾

이 중에서 「금료소초」는 실은 전문(全文)이 전하고 있다.³⁾ 「천애결린집」과 「양매시화」와 「단루필담」은 그 제목으로 미루어, 「금료소초」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편이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리고 「열하궁전기」와 「열하태하기」는 「산장잡기」편이나 「막북행정록」편에 소속되직한 한 편의 독립된 기(記)였을 것이다.

1932년 신식 활자본으로 간행되어 널리 보급된 박영철본(朴榮喆本) 『연암집』은 연암(燕巖)의 5대손인 박영범(朴泳範) 소장 필사본을 저본으로 삼았다고 한다.⁴⁾ 하지만 박영철본은 이를 그대로 출간하지 않고, 전 57권 23책을 재편하여 전 17권 6책으로 통합한 것이다. 이러한 재편 과정에서 『열하일기』 24편 외에 「금료소초」편을 1911년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에서 간행한 『열하일기』로부터 전재(轉載)하였다. 박영철본의 「연암집목록」 말미에 “…… 또 「열하일기총목」 중 ‘보유’ 6칙(則)이 있는데, 원고에는 제목만 있고 글은 없다. 널리 글을 찾았으나 얻지 못해, 부득이 「금료소초」 1편을 광문사(光文社) 간행본에서 취해 편말(編末)에 붙인다.”는 편자의 말이 있다.⁵⁾ 최후의 『열하일기』 이본이라 할 수 있는 박영철본이 간행된 1930년대까지도

1) 단국대 淵民文庫 소장 溪西本 『연암집』, 일본 東洋文庫 소장 『연암집』, 국회도서관 소장 『연암집』, 숭실대 소장 自然經室本 『연암집』,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勝溪文庫本 『연암집』 등은 ‘별집’인 제17권에서 제40권까지가 『열하일기』로 편성되어 있다.

2) 『연암집』 편찬 이전에 만들어진 選集 중의 하나인 『煙湘閣集』(성균관대 소장)에도 「熱河日記補遺目錄」이 있다. 단 여기에는 “「금료소초」, 「양매시화」, 「천애결린집」, 「열하궁전기」, 「열하태하기」, 「단루필담」, 「祭李士龍文」이라 하여, 1640년 淸의 요청으로 출병한 조선군의 砲手로서 松山 전투에서 明軍을 향해 空砲를 쏘다가 淸軍에 발각되어 처형된 李士龍에 대한 제문을 추가하고 있다. 연암은 중국 使行 도중 松山을 지날 때 그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 이 제문을 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열하일기』 「동란섭필」에 그 사실만 밝혀져 있고 제문은 수록되어 있지 않아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

3) 『열하일기』의 초기 필사본에 속하는 단국대 연민문고 소장 『雜錄』(下)와 『열하일기』(貞)에 이미 「금료소초」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현전하는 대다수의 이본들에 모두 「금료소초」가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유독 별집계 이본들만은 「금료소초」를 수록하지 않고 이를 ‘보유’의 대상으로 간주한 까닭을 알 수 없다.

4) 홍기문, 「연암집에 대한 해제」, 『박지원 작품 선집 1』,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1960, 22쪽.

5) 박영철본, 『연암집』, 「연암집목록」, 장16뒤, “…… 且熱河日記總目中, 有補遺六則, 而原稿有目而無文. 廣搜而不得, 只得金蓼

『열하일기』의 ‘보유’ 중 「금료소초」를 제외한 나머지 글들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열하일기』 중의 일문(逸文)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 것은 이가원(李家源) 선생의 논문⁶⁾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소개한 바 박영범옹이 소장하다가 이가원 선생에게 기증했다는 연암 관련 문헌들 가운데 『양매시화』와 『열하일기보유(補遺)』가 있다. 이 두 책은 『열하일기』 ‘보유’와 관계 있는 자료가 분명한데, 안타깝게도 소략한 소개에 그쳐 그에 대한 더 이상의 정보를 알 수가 없다. 논문의 결어에서, 이 두 책을 포함한 전체 문헌들의 내용을 상세히 밝힌 연구 논문을 쓰겠노라고 공언했으나, 그로부터 4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후속 논문이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에 선생은 타계하고 관련 자료들은 단국대 연민문고(淵民文庫)로 이관되었다.

최근에 와서 단국대 연민문고 소장 필사본에 대한 해제사업이 추진되면서 예전에 이가원 선생이 비장(秘藏)했던 연암 관련 문헌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다. 필자도 그 해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양매시화』를 비롯하여 『열하일기』 중의 일문과 관계된 자료들을 비로소 검토할 수 있었다. 이제 최소한의 자료는 확보되었다고 판단되어, 오랫동안 미해결 과제로 남겨진 『열하일기』 ‘보유’의 행방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II. 「양매시화」

단국대 연민문고 소장 『양매시화』는 32장의 필사본 1책으로, 서문과 32개 단락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⁷⁾ 책 제목은 북경의 ‘양매서가(楊梅書街)’에서 중국 문사들과 나눈 시화라는 뜻이다. 양매서가는 곧 양매죽사가(楊梅竹斜街)를 가리킨다. 이는 현재 북경 선무구(宣武區) 동북쪽 매시가(煤市街)와 연수가(延壽街) 사이에 있는 비스듬히 뻗은 거리로, 길을 따라 서남쪽으로 가면 바로 유리창(琉璃廠)과 연결된다. 청대(淸代) 전기(前期)에 증매를 잘 선 양매파(楊媒婆)가 살았다고 해서 ‘양매사가(楊媒斜街)’로 불리우다가, 후대에 발음이 비슷한 ‘양매죽사가’로 바뀌었다고 한다. 민국시기(民國時期)에 양매죽사가는 유리창과 함께 문화의 거리로 유명하여 이름난 출판사들이 많았다.⁸⁾ 이로 미루어, 연암이 북경에 갔던 18세기 후반에도 유리창과 마찬가지로 서점들이 많았을 것이며, 그래서 ‘양매서가’라고도 불리웠던 듯하다.

『열하일기』 「관내정사(關內程史)」 8월 3일자 일기를 보면, 연암이 양매서가에 있던 ‘육일루(六一樓)’라는 서점에서 유세기(兪世琦)와 그의 동행 서황(徐璜)·진정훈(陳庭訓)을 처음 만나 교분을 맺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또 『열하일기』 「피서록(避暑錄)」에도 유세기를 ‘육일재(六一齋=육일루)’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와 필담을 통해 주고받은 시화가 기록되어 있다. 그 뒤 열하로 떠났다가 다시 북경으로 돌아온 연암은 유세기와 양매서가에 있는 단씨(段氏)의 백고약포(白膏藥鋪)에서 자주 만나 필담을 나누었다고 한다.⁹⁾

小抄一篇於光文社所刊本，附于編末。編者識。”

6) 이가원, 「『연암집』 逸書·逸文 및 부록에 대한 소고」, 『국어국문학』 39·40 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68.

7) 일찍이 이가원 선생의 국역 『열하일기』에 그 중의 극히 일부인 서문과 단락(1) 및 단락(3)의 前半만 소개된 바 있다.

8) 王彬·徐秀珊 主編, 『北京地名典』, 中國文聯出版社, 2001, 350~351쪽.

『양매시화』를 보면 권수제(卷首題)로 “熱河日記卷之〇/ 楊梅詩話”라 써어 있다. 이 책이 아직 『열하일기』의 권차(卷次)도 부여되어 있지 않은 초기 필사본임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별도의 제목 표시 없이 서문이 실려 있다. 아래에 「양매시화」의 서문을 소개한다.

나는 황포(黃圃) 유세기를 유리창에서 처음 만났다. 그는 자가 식한(式韓)이며, 거인(學人)이다. 열하에서 북경으로 돌아온 뒤, 즉시 황포와 양매서가에서 만나 대화하기로 약속하고, 모두 일곱 번 만났다. 황포는 거인 능야(凌野), 태사(太史: 翰林編修 - 인용자) 고역생(高域生), 한림(翰林: 庶吉士) 초팽령(初彭齡), 한림 왕성(王晟), 거인 풍승건(馮乘健: 馮秉健과 동일인임)과 같은 중국의 명사들이 많이 이끌고 왔다. 그들은 모두 재주가 높고 운치가 맑아, 글 한 자 말 한 마디라도 모두 입에서 향기가 나는 듯했다. 하지만 필담한 초고는 명사들이 많이 빼앗아 가버렸다. 귀국할 때 가져온 보따리를 점검하니 그 중 겨우 10분지 3, 4가 남았을 뿐이다. 그나마도 술 취한 뒤에 휘갈겨 썼거나, 날이 어둡기 전에 재빨리 쓴 것들이었다. 예를 들자면 여산(廬山)이 새벽 구름에 가려 진면목을 찾아보기 어렵고, 소옹(小翁: 少翁의 오기)이 휘장을 치자 패옥(佩玉)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오는 것과 같았다.¹⁰⁾ 엄화계(嚴畫溪)¹¹⁾에서 한가한 날을 틈타 며칠을 뒤적거려 보고 나서야 필담한 초고의 순서를 정할 수 있었다.

아! 당시를 상상해 보니, 홀로 붉은 난간에 기대어 손님들을 둘러보고 있노라면, 수레나 말을 타고 잇달아 와서 반갑게 만난 즉시 주연(酒宴)을 벌이고, 흥금을 터놓고 농담하던 일이 눈 앞에 선하다. 그때 화제가 만발하여 우담화(優曇花)가 흐드러지게 핀 것 같았고, 해가 긴 날에 신명나서 이야기하며 손과 팔을 놀려 필담하던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인간 세상의 이같은 즐거움을 어느 날인들 잊으리오?¹²⁾

요컨대 『양매시화』는 연암이 열하에서 북경으로 돌아온 뒤인 정조 4년 8월 20일 이후 9월 17일 북경을 떠나기 전까지, 중국 문사 유세기 등과 양매서가에서 일곱 차례나 만나 나눈 필담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이제 단락별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청나라 시인 전방표(錢芳標)의 「내직잡시(內直雜詩)」에 조선의 특산물로 소개된 백추지(白硯紙)와 낭호필(狼毫筆) 및 조선의 외교문서 서체(書體)에 대해 논했다.

(2) 안질의 비방을 소개했다. 이 비방은 일찍이 육비(陸飛)가 홍대용(洪大容)에게 가르쳐준 것으로, 연암

9) 박영철본, 『연암집』 권13, 「반선시말」, 장35뒤~36앞; 권14, 「피서록」, 장49뒤~50뒤, 장50앞뒤; 권15, 「동란섭필」, 장40앞 참조.

10) 蘇軾의 시 「題西林壁」에 “不識廬山真面目, 只緣身在此山中.”이라고 하였다. 또 『史記』 「孝武本紀」에, 漢 武帝가 총애하던 王夫人이 죽자 方士 少翁이 方術로 밤에 王夫人의 혼을 불러 들이니, 한 무제가 휘장 안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고 하였다.

11) 황해도 金川郡의 산골짜기에 있던 연암의 은거처 바로 앞의 계곡이다.

12) “余初遇俞黃圃世琦于琉璃廠中, 字式韓, 學人也. 既自熱河還皇城, 卽約黃圃會話于楊梅書街, 凡七遭. 黃圃多引海內名士, 如凌學人野·高太史域生·初翰林彭齡·王翰林晟·馮學人秉(秉健), 皆才高韻清, 其隻字片語, 無不分馥牙頰. 然其談艸多爲諸名流所掠去. 及檢歸裝, 僅存其十之三四, 而或醉後亂墨, 或迫嘔走筆, 譬如廬山曉雲, 眞面難尋, 小[少]翁施帳, 珮聲遲遲. 畫溪暇日, 繙閱累朝, 始能第次. 噫! 像想當日, 獨憑紅欄, 呵[來]來諸客, 而車騎後先, 逢迎初開, 暢襟談謔, 如在眼中. 其談屑菲微, 曇花歷亂, 永日揮塵, 手腕可念. 人間此歡, 何日而忘?” 이가원 선생의 국역본에서 소개한 원문에는 오타자가 적지 않다. 번역문의 오류도 바로잡았다.

은 홍대용에게 이를 배워 누차 효험을 봤는데, 능아에게 가르쳐 주었더니 그도 안질이 곧 나았다고 한다.

(3) 왕사진(王士禎: 王士禎의 初名)의 『감구집(感舊集)』에 뽑힌 김상헌(金尙憲)의 시들 중에 윤색·산절(刪截)한 부분이 많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예로 「효발평도(曉發平島)」 등의 시를 들었다.

(4) 왕사진의 『어양시화(漁洋詩話)』에 의거하여, 김상헌이 조공 가는 길에 장연등(張延登)의 집에 유숙했으며, 장연등이 김상헌의 『조천록(朝天錄)』을 간행했다고 하였다.

(5) 『감구집』에도 강희(康熙) 때 조선의 한시를 수집한 『조선채풍록(朝鮮採風錄)』을 편찬한 사실과 아울러, 장연등이 김상헌의 『조천록』을 간행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다.

단락(3)~(5)에 언급된 김상헌의 조천시(朝天詩)에 대해서는 『열하일기』 「피서록」에도 관련 기사가 있다.

(6) 배시항(裴是幌)의 『북정일록(北征日錄)』을 간추려 소개하였다. 12장이 넘는 장문이다. 배시항은 효종 9년(1658) 청의 요청으로 제2차 나선(羅禪: 러시아) 정벌에 참전하여 전공을 세운 인물이다. “나는 학산(鶴山) 신돈복씨(辛敦復氏)로부터 배시항이 기록한 북정시말(北征始末)을 얻은 적이 있는데, 번다하고 거친 부분을 잘라내고 줄거리를 다음과 같이 대략 소개한다.”고 했다.¹³⁾

단락(6)은 연암이 신돈복에게 얻은 배시항의 기록을 축약·소개한 것으로 짐작된다. 연암은 『열하일기』 「피서록」에서도 신돈복에게 들은 신선 남주(南耆)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叢稿)』 중 「나선변증설(羅禪辨證說)」을 보면, 배시항의 『북정일록』을 인용하고 나서, “이는 배시항이 스스로 기록한 것이다. 신돈복이 축약하여 『학산한언(鶴山閑言)』에 수록한 것을, 나의 조부 형암공(炯庵公: 이덕무)이 다시 축약하여 남겨 두었다.”¹⁴⁾고 하였다. 이는 공교롭게도 단락(6) 중의 인용 구절과 내용상 합치한다. 따라서 단락(6)은 연암이 이덕무의 축약본을 전제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 『북정일록』의 뒤에 붙인 글인 「제배시항북정록후(題裴是幌北征錄後)」이다. “나는 나이가 쉰 살에 가까운데도 아직 우리나라에 배시항이란 사람이 있어 외국에서 큰 공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금년 초여름에 우연히 진사 민유(閔瑜)로부터 배시항의 『북정일록』을 얻어 읽어 보았더니 몹시 장쾌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근자에 금산(金山: 지금의 경북 김천시)의 진사 박주승(朴柱承) 경부(擎夫)를 만나서 배시항 고사를 언급했더니” 경부가 배시항에 관한 뒷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한다. 끝으로, “그의 일록(日錄)이 몹시 번다하고 거칠므로, 내가 그를 대신해 축약하고 윤색하여 세상에 전함으로써 배시항의 이름이 후세에 묻히지 않게 하고자 한다.”고 하여, 배시항의 『북정일록』 축약본을 만든 동기를 밝혔다.¹⁵⁾

이로 미루어, 단락(7)은 배시항의 『북정일록』 축약본을 만든 뒤 지은 신돈복의 발문을 전제한 것으로 추

13) “余嘗從辛鶴山(敦復氏)得是幌所錄北征始末, 刪繁芟蕪, 略見梗概如右焉.” 배시항의 활약상은 『星湖僊說』에 인용된 『車漢日記』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소설 「배시항전」이 있으며, 배시항의 상관인 申澍의 『北征日記』도 전하고 있다. 계승범, 「나선 정벌과 申澍의 『北征錄』」, 『軍事史』 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참조.

14) “此裴是幌之自記者. 辛敦復刪節載於鶴山閑言者, 我王考炯庵公更爲刪削以置.”

15) “余年近五旬, 而未聞我東有裴是幌者立大功於殊域, …… 今年初夏, 偶從進士閔瑜得裴是幌北征日錄, 讀之甚可壯也. …… 近遇金山進士朴柱承擎夫, 言及是幌事. 擎夫曰, …… 其日錄頗繁蕪, 故余乃爲之刪削修潤, 以傳於世, 使是幌之名不泯沒於後耳.” 박주승은 朴柱天의 初名이다. 자는 擎夫이고, 본관은 淸州이다.

측된다. 단락(7)의 ‘나(余)’는 ‘진사’ 민유에게 배시황의 『북정일록』을 얻었다고 했고, ‘진사’ 박주승에게 배시황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국조사마방목(國朝司馬榜目)』에 의하면, 민유는 1711년생으로 1740년에 진사 급제했으며, 박주승은 신돈복과 마찬가지로 1692년생으로 1754년에 진사 급제하였다.¹⁶⁾

(8)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이름이나 자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각각 남궁괄(南宮括: 孔子의 제자)과 김시습(金時習)을 들었다.

(9)~(13) 모두 위구르족에 관한 기사로 고염무(顧炎武)의 『일지록(日知錄)』 권29, 「토번회흔(吐蕃回紇)」에서 전제한 글이다.

(14) 고대 중국에서는 말(韃: 버선)을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15) 용자유(龍子猶: 馮夢龍의 호)의 「고려승령(高麗僧令)」을 소개했다. 고려의 중이 행한 주령(酒令)에 중국 사신(使臣)이 응수를 잘했다는 소화(笑話)이다.¹⁷⁾ 이 단락은 『열하일기』 「성경잡지(盛京雜識)」 중 「상루필담(商樓筆談)」에서 중국 상인 비치(費樞)가 연암에게 질문한 대목과 내용이 똑같다.

소옹(笠翁)의 『소사(笑史)』에 용자유(龍子猶)의 「고려승령」을 기록하기를, “조정의 사신이 고려에 갔더니, 고려는 승려 한 사람을 연회에 배석하게 했다. 그 승려가 주령을 행하기를, ‘항우(項羽)와 장양(張良)이 산(傘) 하나를 두고 다투네(項羽張良爭一傘)’라고 했다. 항우는 그것을 ‘우산’이라고 우기고 장양은 ‘양산’이라고 우긴다는 뜻이었다. 그러자 사신이 창졸간에 대답하기를, ‘허유(許由)와 조조(趙趙)가 호로(胡盧: 호리병) 하나를 두고 다투네(許由趙趙爭一胡盧)’라고 했다. 허유는 그것을 ‘유호로(油胡盧: 기름 병)’라 우기고 조조는 ‘조호로(醋胡盧: 식초병)’라 우긴다는 뜻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고려 승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¹⁸⁾

이처럼 「고려승령」은 고려의 승려가 장난 삼아 주령으로 “項羽張良爭一傘”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시구를 부르자, 중국의 사신이 “許由趙趙爭一胡盧”라는 대구로 기민하게 응수했다는 내용인데, 기존 국역서들에는 모두 부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다.

(16) 청나라 시인 왕평(王平)과 그의 시를 소개했다. 이는 『열하일기』 「피서록」에서 풍병건(馮秉健)과 능야가 왕평에 대해 소개한 필담 내용을 거두절미하고 인용한 것이다.

(17)~(21) 명나라 때의 생원(生員) 제도의 변천을 소개한 것으로, 『일지록』 권17, 「생원액수(生員額數)」에서 전제한 글들이다.

16) 글의 첫머리에서 자신의 나이가 쉰 살에 가깝다고 했으므로, 필자가 만약 신돈복이라면 이 글을 쓴 시기는 1740년 경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박주승이 진사가 되기 이전이므로 만약 ‘쉰 살(五旬)’이 오기가 아니라면, 이 글의 필자가 신돈복일 수 없다는 문제가 남는다.

17) 小註로 “笠翁 李漁 『古笑史』”라고 하여 출처를 밝혔다. 그러나 『古笑史』는 馮夢龍이 편찬한 책으로, 康熙 6年(1667)에 李漁의 서문을 덧붙여 출간한 탓에 李漁가 『古笑史』의 편찬자로 오인되기도 했다. 「高麗僧令」은 『古笑史』 談資部에 수록되어 있다(『笑史』,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99, 「『笑史』導讀」 참조).

18) 박영철본, 『연암집』 권11, 「성경잡지」, 장50앞, “笠翁笑史錄龍子猶高麗僧令云: ‘朝使出高麗, 高麗使一僧陪宴, 行一令曰: 項羽張良爭一傘, 羽曰雨傘, 良曰涼傘. 朝使倉卒對曰: 許由趙趙爭一胡盧, 由曰油胡盧, 趙曰醋胡盧.’ 麗僧何名?”(『양매시화』는 이와 몇 자 차이남) 趙趙는 한나라 景帝 때 御史大夫를 지냈다. 그의 이름 ‘조(趙)’는 ‘조(醋)’와 중국어로 발음(cù)이 똑같다.

(22)과 (23) 역시 각각 『일지록』 권17 「중식액수(中式額數)」와 「대신자제(大臣子弟)」에서 전제한 글들이다.

(24) 인조 때 이괄의 난에 가담했다가 피살된 귀성부사(龜城府使) 한명련(韓明璉)의 두 아들 한난(韓瀾)과 한윤(韓潤)이 망명해서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에 종군한 사실을 소개하고, 한명련의 아들 중 이친왕(怡親王)에 봉해졌다는 ‘한의(韓義)’가 곧 한난일 것으로 추측했다. 그런데 이에 관한 훨씬 더 자세한 기사가 『열하일기』 「구외이문(口外異聞)」 〈명련자봉왕(明璉子封王)〉조에 보인다.

(25) 병자호란 때 끌려간 삼학사(三學士)가 순절한 정확한 날짜를 추정했다. 이와 거의 동일한 기사로 『열하일기』 「구외이문」에 〈삼학사성인지일(三學士成仁之日)〉이 있다.

(26) 당시 청나라의 명사로 기운(紀昀)을 포함한 5인을 꼽았다. 『열하일기』 「구외이문」의 〈당금명사(當今名士)〉조와 거의 똑같다.

이로 미루어, 『열하일기』 「구외이문」의 해당 기사들은 『양매시화』에서 위의 세 단락을 발췌한 뒤 가필한 것이 아닌가 한다.

(27) 명나라가 망할 때 조선에 망명하여 귀화한 강세작(康世爵)의 「자술(自述)」을 전제하였다. 7장 가까이 되는 분량이다.

(28) 강세작의 가계와 약력을 소개한 뒤, 남구만(南九萬)과 박세당(朴世堂)이 각각 편찬한 「강세작전(康世爵傳)」, 최창대(崔昌大)가 편찬한 「강군세작묘지명(康君世爵墓誌銘)」, 이기홍(李箕洪)이 지은 전후서(傳後序)가 있다고 했다.

단락 (27)과 (28)에서 소개한 강세작의 고사는 『열하일기』 「도강록」 6월 26일자 기사에도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29)~(32)는 모두 중국의 상제(喪制)에 관한 논의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매시화』는 『열하일기』의 다른 편들에도 있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양매시화』가 그대로 『열하일기』에 하나의 독립된 편으로 편입된다면 내용상의 중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양매시화』는 단락(9)~(13), (17)~(23) 등 모두 12개 단락이나 『일지록』에서 기사를 전제하였다. 이는 그만큼 연암이 顧炎武의 영향을 깊이 받았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다. 『열하일기』 중 청나라의 학술과 관련한 논의에서 자주 거론된 학자가 바로 고염무이다. 『열하일기』 「산장잡기」 중의 명문인 「야출고북구기(夜出古北口記)」에서도 연암은 고북구(古北口)의 지리와 역사를 서술하면서 고염무의 『창평산수기(昌平山水記)』를 대폭 인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양매시화』는 시화(詩話)의 범주에 속하기 어려운 내용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안질의 비방을 소개한 단락(2)는 「금요소초」편에 더 적합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배시항의 『북정일록』이나 강세작의 「자술」은 연암이 중국 문사들과 나눈 필담 초고에는 없던 자료임이 분명한데도 『양매시화』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양매시화』는 『일지록』에서 전제한 글이나 『열하일기』의 다른 편들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시화에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자료도 다수 수록하고 있다. 아마 이 때문에 『열하일기』의 한 편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만 것이 아닌가 한다.

Ⅲ. 「열하태학기」와 「천애결린집」

연암의 글들을 수습한 초기 필사본 중 단국대 연민문고 소장 『연암산고(燕巖散稿)』(2)는 『양매시화』와 마찬가지로 『열하일기』 중의 일문과 관련이 깊은 글들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모두 83장의 필사본 1책이다. 정식 표지도 없이, 첫 장에다가 쪽지를 덧붙여 “燕巖散稿 二”라 쓰고는 필사한 작품들의 일부 목록을 작은 글자로 적어 놓았다. 그 목록에 「태학기(大學記)」¹⁹⁾와 「천애결린집」이 포함되어 있다.

『연암산고』(2)에 수록된 「태학기」는 『열하일기』 ‘보유’에 속하는 「열하태학기」의 초고로 짐작되는 매우 중요한 글이다. 『열하일기』 「막북행정록」 8월 9일자 일기를 보면, 그날 열하에 도착한 조선 사행은 태학을 속소로 배정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이 태학은 작년에 창건되었는데 제도가 북경과 똑같다고 하면서 “따로 「승덕태학기(承德太學記)」가 있다.”고 하였다.²⁰⁾ 열하를 ‘승덕(承德)’이라고도 불렀으므로, 「승덕태학기」는 바로 「열하태학기」를 가리킨다. 『연암산고』(2)에 수록된 「태학기」의 전문(1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건륭 42년(1777) 황제가 열하에 있으면서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성조(聖祖: 강희제 - 인용자)의 『어제산장시(御製山莊詩)』에 ‘모여든 백성이 일만 가구에 이르렀네(聚民至萬家)’라고 한 것은,²¹⁾ 이 사실을 기뻐하신 것이다. 지역이 황량하고 구석져 만리장성 이북의 오지가 되었으며, 예전에는 전쟁터여서 중원의 사대부들은 그곳까지 갈 수 있는 이가 드물었다. 성조께서 30년을 경영하여 비로소 일만 가구의 취락을 이루고, 몹시 기쁜 나머지 시를 지어 그 기쁨을 표현하신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 관한 사업은 미처 할 겨를을 얻지 못하였다. 아마 장차 부유하게 한 뒤에 가르치려 하신 것이고, 뒤를 잇는 천자에게 그 일을 기대하신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지금 짐이 중원을 차지하니 북쪽 끝의 불모지조차 복종하지 않은 곳이 없어 모두 문교(文敎)를 우러러 보고 있다. 승덕부(承德府)의 백성이 10만여 가구에 이르니, 삼가 성조께서 경영하던 초기에 비해 보아도 부유해지고 번성해졌다. 이제 백성들이 열 배나 되었으니 그들의 도덕을 진작시킬 방도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짐은 조종(朝宗)의 뜻을 계승하지 못할까 밤낮으로 두려워하고 있다. 조정의 신하들은 모두 짐이 문교를 숭상하는 정치를 하도록 보좌할 능력이 있으니, 그 일을 도모하여라!”

이에 대학사(大學士) 신(臣) 서혁덕(舒赫德), 신(臣) 우민중(于敏中), 신(臣) 조혜(兆惠)²²⁾가 승덕부학(承德府學)의 건립을 청하니, 황제가 조서를 내리기를,

“천자가 수도로 삼은 곳을 ‘경사(京師)’라고 부른다. 수도의 ‘도(都)’자는 통치한다는 뜻이다. ‘경사’란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는 뜻이다. 짐은 근년에 이곳에 주필(駐蹕)하며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다. 천자가 학교를 세운다는데 ‘부학(府學)’이라 불러서야 되겠는가? 그 제도는 경사(북경)를 본받으라!”

19) “大學記”는 ‘태학기’로 읽는다. 이때 ‘太’자는 ‘太’의 古字이다.

20) 박영철본, 『연암집』 권12, 장71앞, “別有承德太學記.”

21) 『어제산장시』란 곧 康熙帝의 『御製避暑山莊詩』(2권)를 가리킨다. 강희제가 피서산장에서 36경을 선정하여 각 1首씩 지은 시를 모은 것으로, 강희 51년(1712) 간행되었다. ‘聚民至萬家’는 황제의 寢宮인 烟波致爽殿을 노래한 제1수 「烟波致爽」의 마지막 구절이다.

22) 協辦大學士 兆惠는 건륭 29년(1764)에 이미 사망했다. 착오가 있는 듯하다.

고 하였다. 작년 기해(己亥: 1779)년 겨울에 공사가 완공되자, ‘태학’으로 부르라고 명하였다.

금년 봄에 황제가 강남 지방을 순시했다. 하남성(河南省)을 순시한 뒤 절강성(浙江省) 동부와 서부까지 이르렀다가 곧장 북향하여 열하로 돌아와서, 몸소 석채(釋菜)를 지내고 과거를 실시하여 생원 80인을 태학에 두었다.²³⁾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신을 태학에 묵게 한 것은 황제의 뜻을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를 예의지방으로 여긴 때문이다. 천자가 과거를 실시한지 겨우 10여 일이 지났다.

대성전은 처마가 이중이고, 황색 유리기와를 덮었다. 대성문(大成門)도 처마가 이중이고 황색 유리기와를 덮었으며, 동쪽과 서쪽에 문을 설치했다. 대성문 밖에 삼공교(三空橋: 구멍이 셋인 아치형 다리)가 있는데 흰 돌로 난간을 했다. 다리 아래에 연월지(偃月池: 반달 모양의 못)를 파고, 괴석(怪石)을 쌓아 제방을 만들었다. 황제가 짓고 친필로 쓴 어제비(御製碑)²⁴⁾가 있는데, 황색 기와로 덮은 비각(碑閣)을 세워 비를 보호하였다. 강희 때부터²⁵⁾

여기에서 본문이 중단되어 전모를 알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나머지를 필사한 부분이 어떤 연유로 망실되어 『연암산고』(2)에 함께 수록되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부분만 보아도 『연암산고』(2)의 「태학기」는 곧 「열하태학기」의 초고임을 짐작할 수 있다.

「태학기」 다음에 「천애결린집」이 이어진다. ‘천애결린집’이란 제목은 “천하에 날 알아주는 이 있으면/ 하늘 끝에 가더라도 가까운 이웃이 있는 것과 같네(海內存知己, 天涯若比鄰)”라는 당나라 시인 왕발(王勃)의 시구에서 따온 것으로, 머나먼 중국 땅에서 이웃처럼 다정한 우의를 맺은 사람들의 편지를 모았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풍승진서(馮乘驥書)」, 「신가옥서(單可玉書)」, 「유세기서(兪世琦書)」와 아울러, 특이하게도 만주(滿洲) 문자로 쓴 「하란태서(荷蘭泰書)」 등 모두 4종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풍승진서」를 보면 첫 장의 우측 여백에 “熱河日記卷之〇/ 潘南朴趾源美齋著/ 天涯結鄰集”이라고 추기(追記)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연암이 장차 『열하일기』의 한 편으로 삼기 위해 「천애결린집」을 편찬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단국대 연민문고에 소장된 『열하일기』의 초기 필사본인 『연행음청(燕行陰晴)』(건(乾))을 보면, 표지 우측에 “天涯結鄰集, 脫去, 在散稿第二冊中”이라 써여 있다. 「천애결린집」은 원래 『연행음청』(건)에 수록되어 있었으나 이를 떼어내 『연암산고』 제2책에 수록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열하일기』 중의 일문의 하나인 「천애결린집」은 『연암산고』(2)에 수록된 바로 이 편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연암의 아들인 박종채(朴宗采)의 『과정록(過庭錄)』에 의하면, 연암이 북경 체류 중에 사견 중국 명사로 왕

23) 당시 정사 박명원과 부사 정원시가 올린 장계에, 건륭제가 5월 9일에 南京에서 어가를 돌려 22일에 熱河로 行幸하였다고 보고했다(『정조실록』 4년 9월 17일).

24) 건륭 44년(1779)에 지은 「御製熱河文廟碑記」를 가리킨다.

25) “乾隆四十二年, 皇帝在熱河, 詔曰: ‘聖祖御製山莊詩曰: ‘聚民至萬家’, 喜之也. 地荒僻爲塞北奧區. ●●在昔戎馬之場, 中原士大夫罕得以至焉. 聖祖經營三十年, 始得萬家之聚, 而喜之至, 發於吟詠之間, 而猶未遑於學校之事. 蓋將富而後教之, 有待乎嗣辟也. 今朕撫有函夏, 窮髮之北, 莫不貢服, 咸仰文教. 承德府民, 至十餘萬戶, 仰比聖祖經始之初, 既富且庶矣. 今以十倍之民, 不思所以振德之乎? 朕蚤夜以不能繼述朝宗之志爲懼. 廷臣悉能佐朕以右文之治, 其圖之!’ 大學士(臣)舒赫德·(臣)于敏中·(臣)兆惠請立承德府學. 皇帝詔曰: ‘天子所都, 稱京師. 都字一統也; 京師者大衆也. 朕比歲駐蹕于此, 一統大衆矣. 爲天子建學而稱府, 可乎? 其制視京師!’ 去年己亥冬功成, 命曰: ‘太學.’ 今年春皇帝巡江南, 視河至兩浙, 直北還熱河, 親釋菜, 視學, 置生員八十人. 今我使之館太學, 取皇帝旨, 爲其禮義之邦也. 其視學, 繼過十餘日. 大成殿重簷, 黃琉璃瓦. 大成門重簷, 亦覆黃琉璃瓦, 東西立闕. 大成門外有三空橋, 白石欄, 穿偃月池於橋下, 築怪石爲堤. 有御製碑, 皇帝并書, 建黃瓦閣覆之. 自康”

성·고역생·조팽령·허조당(許兆黨)·유세기·서황·능야·진정훈·육가초(陸可樵: 이름 미상)·이면(李冕)·풍승건·선가옥 등 10여 인이 있으나, 그들과 주고받은 필담과 왕복 편지들은 모두 잃어버려 전하지 않는다고 했다.²⁶⁾ 그런데 『연암산고』(2)의 「천애결린집」은 그 중의 일부인 풍승건·선가옥·유세기 등의 편지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소개할 「풍승건서」는 북경에서 사귀 중국인 풍병건²⁷⁾이 연암에게 보낸 편지로, 모두 3통이다.

① 연암 선생께. 청심환과 부채 각각 다섯을 하사하셨는데, 사양하자니 불손하고 받자하니 실로 부끄럽습니다. 선생께 올린 편지에 전혀 객기는 없사오며, 『원류지론(源流至論)』 전함(全函)은 특히나 중국에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신중하게 진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실로 문망(文望) 높으신 상경(上卿)²⁸⁾같은 분조차 속견(俗見)을 품으시고, 게다가 반드시 100권 내외로 제한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유리창 서문(西門)의 오류거(五柳居)에 소장된(원주: 문수당(文粹堂)²⁹⁾도 훌륭합니다) 신간서와 고서 중에 구하기 힘든 책들이 매우 많으니, 만약 가격에 구해받지 않는다면 만 권이라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무식하고 고루한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입었는데, 또 제 정성을 다하지 못하니 안타까운 마음을 어디다 비기겠습니까?

이제 백약(白約)³⁰⁾을 받자왔으나, 일이 있어 만나볼 수 없으므로 따로 시집 2종을 증정하오니 어르신 면전에 바치도록 부탁드립니다. 혹시 어제 올린 각종 서적 중에 그래도 쓸 만한 게 있다면 반드시 곧 알려주십시오. 저의 하찮은 정성을 다해 유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생은 범속한 예절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정을 맺으셨습니다. 대방(大邦: 중국)의 온갖 물건들은 이곳(북경)에서 바라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만, 선생의 주옥같은 휘호(揮毫)는 또한 떠날 날이 촉박하여 써주시겠다는 허락을 얻지 못하니, 어쩌면 좋을지요!

‘천지 사이에 살아가는 인생이란/ 바쁘기가 먼 길 가는 나그네와 같으니,’³¹⁾ 겨우 수십 년의 수명을 다룰 따름입니다. 다행히 만나볼 수만 있다면 이별도 그다지 괴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오래 머물 수는 없을 테니까요. 대충 아뢰오며, 할 말을 다 여쭙지 못합니다. 15일 건일(健一) 올림.³²⁾

26) 박종채, 『과정록』, 『열상고전연구』 8, 열상고전연구회, 1995, 382쪽.

27) 풍병건의 이름은 이 편지나 『양매시화』의 서문에는 ‘乘健’ 또는 ‘乘健’으로 되어 있다. 『過庭錄』에도 그의 자가 ‘乘驥’, 이름은 ‘乘健’으로 소개되어 있다(『과정록』, 『湧上古典研究』 8, 열상고전연구회, 1995, 382쪽). 그러나 『열하일기』의 「반선시말」, 「피서록」, 「동란섭필」 등에는 모두 ‘秉健’으로 표기되어 있다. 청나라 시인 黃景仁의 『兩當軒集』에도 馮秉健은 자가 健一이며, 通州人으로 소개되어 있다(上海古籍出版社, 1983, 314쪽).

28) 연암의 8촌 형님인 정사 박명원을 가리키는 듯하다. 참고로 『열하일기』 「태학유관록」 8월 9일조 기사에 奇豐額이 연암의 5대조 朴淵에 대해 “문망이 높으신 상경(文望上卿)”이라고 찬탄한 대목이 있다.

29) 『열하일기』 「황도기략」(유리창)조에, 유리창에 있는 가장 큰 서점으로 문수당과 오류거, 先月樓, 鳴盛堂을 꼽았다.

30) 白契와 동의어로 판단된다. 백계는 官에 납세하여 인가를 받지 않은 매매 계약서를 말한다. 『韓清文鑑』에는 ‘사사문서’(私事文書)라고 번역하였다(권10, 産業部, 貿易類).

31) 『文選』의 「古詩十九首」 중 제3수에 있는 구절이다.

32) “燕岩先生左右. 賜丸扇各五, 却之不恭, 受實愧也. 所奉書, 並無客氣, 而源流至論全函, 尤以中華難得故, 故珍重輸誠. 未料至誠如文望上卿, 亦存俗見, 且必限以百卷外內云. 然則琉璃廠西門之五柳居所存(文粹堂亦佳)新舊難得書類夥의 오자]甚. 如不限直, 萬卷可得矣. 蒙不棄荒陋, 復不盡鄙人之誠, 恨也奚似? 茲承白約, 因事不得謀面, 另呈詩集二種, 托尊親面致. 儻日昨所奉各種, 尙有可用, 務即示知, 當盡此區區爲無憾. 先生與友, 以誠不以俗. 大邦種種, 此地皆可得所望者. 珠玉揮毫, 又以行促不獲命, 如

①은 조선 사행이 북경을 떠나기 이틀 전인 9월 15일에 풍병건이 쓴 편지로, ‘건일’은 그의 자이다. 연암이 풍병건에게 그 전질의 구입을 부탁한 『원류지론』은 곧 『고금원류지론(古今源流至論)』을 가리킨다. 이는 송나라 말에 방각본(坊刻本)으로 간행된 백과전서류에 속하는 책이다. 모두 40권인데, 명대(明代) 판본 몇 종이 현재까지 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에서는 비록 과거 준비용 참고서이기는 하지만 송대(宋代)의 조장국전(朝章國典)을 상세히 서술하여 고증가(考證家)가 참고할만한 책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³³⁾

위의 편지 내용으로 미루어, 연암은 아마 그의 8촌형인 정사 박명원의 부탁을 받고 풍병건에게 『고금원류지론』 등의 서적 구입을 의뢰했던 듯하다. 당시 북경에서 서적을 구매하려면 조선 사행의 접대를 맡은 중국 측 말단 관원인 서반(序班)을 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서반들은 서적 거래 알선을 독점하고 그 댓가를 중요한 수입원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 몰래 서적을 구매하기가 무척 힘들었다고 한다.³⁴⁾ 아마 이와 같은 폐단을 피하기 위해 연암은 풍병건을 통해 서적을 구입하고자 했던 듯하다.

② 박연암 선생께 바치는 서적 4종(원주: 『경완(經玩)』, 『잡록(雜錄)』, 『괘도설(卦圖說)』)은 모두 신간서입니다. 『원류지론』은 송대 판본으로, 오래전부터 진기하게 여겨져왔습니다. 제가 몹시 아끼던 것을 바칩니다. 어제 작별한 뒤에 또 몹시 취하여, 지금 외출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떠나는 행차를 반드시 전송하겠습니다. 대충 아뢰오며, 예의를 다 갖추지 못합니다. 풍승건 올림.³⁵⁾

②는 9월 16일자 편지로 짐작된다. 내용으로 미루어, 그 전날 풍병건은 연암에게 편지(①)를 보낸 뒤에 연암을 직접 만났던 듯하다. 이 편지(②)에서 풍병건은 자신의 애장서인 『고금원류지론』과 함께, 『경완』, 『잡록』, 『괘도설』 등의 신간서를 보낸다고 했다.

『경완』은 청초(淸初)의 학자 심숙(沈淑)이 편찬한 책으로, 모두 20권이다. 『경전석문(經典釋文)』 및 경전(經傳) 중의 문자 차이, 『좌전(左傳)』 중의 국명·지명·직관(職官)·궁실(宮室), 『십삼경주소(十三經注疏)』 중의 쇄어(瑣語) 등을 자세히 조사·검토한 책이다.³⁶⁾ 『잡록』은 명말(明末)의 저명한 문인 학자인 풍시가(馮時可)가 편찬한 『우항잡록(雨航雜錄)』을 가리키는 듯하다. 『우항잡록』의 상권은 주로 역대의 시문(詩文)과 학술에 관해 논평하고, 하권은 처세와 양생법 등 잡사와 각종 물산을 주로 기록했다.³⁷⁾ 『괘도설』은 『주

何如何! 人生天地間, 忽如遠行客, 僅爭數十年耳. 會面其幸, 別離亦非甚苦. 蓋不可沾滯於此中也. 草草上達, 不盡不盡. 十五日. 健一拜手.”

33) 『四庫全書總目』 권135, 子部 類書類1.

34) 王振忠, 「朝鮮燕行使與十八世紀北京的琉璃廠」, 『동아시아문화연구』,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0, 41~56쪽; 신익철, 「연행록을 통해 본 18세기 전반 한중 서적교류의 양상」, 『태동고전연구』 25,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2010, 233~238쪽 참조.

35) “奉贈朴燕岩先生書四種(原註: 經玩·雜錄·卦圖說)皆新書. 源流至論係宋版, 珍之久矣. 割愛上陳. 昨別後又大醉, 刻下不能出門. 明日當奉送行旌也. 草草達左右, 不備. 馮乘健頓.”

36) 『四庫全書總目』 권34, 經部 五經總義類存目, 『經玩』. 沈淑은 雍正 1년(1723) 進士 급제했으며, 저서로 『周官翼疏』 등이 있다. 『경완』은 서울대 규장각에도 소장되어 있다. 正祖의 호인 ‘弘齋’라는 印記로 미루어, 바로 1780년 연행 당시에 구입해온 것인지도 모른다.

37) 『四庫全書總目』 권122, 子部 雜家類6, 「雨航雜錄」. 풍시가는 隆慶 5년(1571)에 진사 급제한 뒤, 벼슬은 湖廣布政司參政에 이르렀다. 明末에 ‘後七子’를 계승한 ‘中興五子’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열하일기』에 풍시가와 그의 저술인 『蓬窓續錄』이

역』의 궤에 대해 그림을 그려 풀이한 책으로 짐작되나, ‘궤도설’로 약칭되는 저술이 많아 누구의 어떤 저술을 가리키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③ 구입할 수 있는 거질(巨帙)이 간혹 있긴 합니다. 다만 갑자기 준비하기 어려워, 감히 부탁을 들어드리지 못합니다. 어제 빛나는 글씨를 접할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편지 글씨도 옥같이 아름답습니다. 그 절반이 혹시 귀처(貴處)에 남아 있는지요? 이제 별종의 책 2권을 동봉하오니, 살펴보고 간직하여 주십시오. 또 이만 줄입니다. 승건 올림.

[추신] 지금 술로 인해 탈이 난데다가 좌중에 손님이 있어, 몸을 빼어 즉시 제 시간에 가닿을 수가 없습니다.³⁸⁾

③은 ②와 같은 날짜의 편지로 판단된다. 이 편지에서 풍병건은 서적 구입 문제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면서, 어제 만났을 때 연암이 휘호를 써 준 데 감사를 표하고, 아울러 연암이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글씨를 칭찬하고 있다. 그리고 추신에서는, 급히 만나고 싶다는 연암의 요청에 부응할 수 없는 사정을 밝히고 있다.

두 번째 편지인 「선가옥서」는 중국인 선가옥³⁹⁾이 연암에게 보낸 편지로, 모두 3통이다. 선가옥은 『열하일기』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과정록』에 연암이 북경에서 사귀 인사 중의 한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다.

① 갑자기 좋은 선물을 받았고, 몹시 감사하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이에 음식 두 쟁반, 껌질 칸 호두 한 바구니, 꿀배(玻梨) 두 쟁반을 선생께 삼가 바치오니, 웃으며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가옥 올림⁴⁰⁾

② 얼마전에 아이의 병에 대해 지시를 내려주셔서 감사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신 행차가 급히 출발하므로, 가르치시는 말씀을 항상 들을 기회가 없는 것이 서글픉니다. 병의 증세를 기록한 쪽지를 보내오니, 보시고 또 버리시기 바라오며, 축수를 베풀어주십시오.⁴¹⁾

③ 이별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엎디어 살피건대 편안히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사신 행차가 북경에 온 뒤부터, 어린애는 즉시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했으나 아직 효험이 없습니다. 중국의 초약(草

소개되어 있으며, 이덕무의 『蝨葉記』에도 『우항잡록』이 인용되어 있다.

38) “巨帙可購者, 或有之. 但倉猝難辦, 不敢奉教. 昨日以得接文光爲幸. 盈尺之書又璧, 其半或貴處有存者? 今附奉別種二卷, 望鑒存此. 復不一. 乘驥頓首.”

刻下病酒, 又坐中有客, 故未能脫身, 卽來又及.”

39) 山東省 高密 출신의 지명한 시인으로, 자는 夢環, 호는 師亭이다. 벼슬은 衛輝府 通判을 지냈다. 문집으로 『容安齋詩鈔』와 『萊鷗亭詩餘』가 있다. 徐有林·曹夢九·王照青 纂修, 『民國高密縣志』(『中國地方志集成·山東府縣志輯』 41, 鳳凰出版社·上海書店·巴蜀書社, 2004), 480, 486, 496쪽; 單可玉, 『容安齋詩鈔』(山東文獻集成編纂委員會 編, 『山東文獻集成』 제3집, 제44책, 山東大學出版社, 2009) 참조.

40) “俄承佳惠, 感愧並深. 茲備食物二盤, 露靚核桃一簋, 玻梨二盤, 敬呈左右, 哂入是荷. 單可玉拜手.”

41) “頃以兒病尋賜指示, 感莫可喻. 唯以旌車過發, 不獲常聆警咳, 爲悵也. 病錄小紙送上, 閱復仍祈禱, 賜爲壽.”

藥)은 약재를 채취해서 만드느니라 간혹 진짜가 아닌 것이 있으며, 게다가 생각건대 정해진 운수는 만회할 수 없고 사람 힘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간절하게 구원해 주시려는 마음을 저는 오로지 가슴 깊이 새기고 잊지 않겠습니다. 이보다 앞서 사의를 표하기 위해 저녁에 달려가 면전에 아뢰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고밀인(高密人) 선가옥 올림⁴²⁾

위의 편지들 중 ①은 날짜 미상의 편지로, 연암이 선물을 보낸 데 대한 답례로 음식과 과일 등을 보낸다는 내용이다. 연암과 처음 만나 교분을 맺었을 무렵에 쓴 편지로 짐작된다. ② 역시 날짜 미상의 편지이나, 조선 사행이 북경을 떠나기 직전에 보낸 편지로 짐작된다. 선가옥의 병든 자녀에 대해 연암이 처방을 가르쳐준 데 대해 감사하는 내용이다. ③도 날짜 미상의 편지이나, 그 첫머리에 “이별한 지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 연암이 8월 5일 북경을 떠나 열하에 갔다가 8월 20일 다시 북경에 돌아온 뒤인 9월 초의 어느 날에 쓴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②보다 먼저 씌어진 듯한데, 그 다음에 배치되어 있다. 선가옥은 8월 초에 연암과 만난 뒤, 9월에 들어서야 연암과 다시 연락을 통하게 된 모양이다. 자신의 병든 어린애를 위해 연암이 처방을 내려주었으나 별 효험을 보지 못해 안타까와 하면서도, 그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 위해 곧 방문하겠다는 내용이다. 『열하일기』 중 각종 질병의 치료법을 소개한 「금료소초」에서 보듯이, 연암은 의학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식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선가옥의 병든 자녀를 위해서도 기꺼이 처방을 내려주었던 듯 하다.

세 번째 편지인 「유세기서」는 연암이 북경에서 가장 자주 만났고 가장 친밀한 우정을 맺었던 유세기⁴³⁾가 보낸 편지로, 모두 2통이다.

① 박 노선생(老先生)께 올립니다. 천지의 크기와 사해의 넓이를 어찌 계량할 수 있겠습니까만, 내지(內地: 中原-인용자)는 사방 천 리인 곳이 백 군데인데, 도리(道里)로써 계산하면 북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2,3만 리쯤 되어, 말이 통하지 않는 곳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귀국은 비록 외국에 속하지만, 같은 문자를 쓰고 같은 윤리를 행하니, 중역(重譯)을 해야만 하는 먼 나라들과 비교하면, 어찌 혈육과 같은 사이일뿐이겠습니까? 만약 유자(儒者)의 가르침을 우리나라에 변창하게 한다면, 천 년 뒤에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시를 낭송하고 그 사람의 책을 읽을 것이니, 천 리 밖에 있어서 성인(聖人)의 가르침을 친히 받을 수 없었던 경우와 결코 다르지 않을 터입니다.

선생은 문자로는 성색(聲色)과 정경(情景)을 남김없이 표현할 수 없다고 하시고⁴⁴⁾ 중국에서 읽을 거리를 구하시니, 선생의 뜻인즉 독실하다 하겠습니다. 문자와 언어는 형상을 남김없이 표현하기 어려운 법이니, 선생께 하늘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롱으로 하늘을 엿보면 하늘이 작아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드넓은 광야에서 멀리 보아도 하늘이 하늘다운 점을 밝혀낼 수 없고, 높은 산 꼭대기에

42) “別已經月矣。伏審興居，諒備和暢。自旌車赴都，小兒即照方服藥，尙無效驗。中華艸藥採製，或非其真，且意定數莫挽，人力難施。殷殷拯球之懷，僕唯刻勒弗忘也。先此布謝，晚當走謁諸面。悉不備。高密人單可玉拜手。”

43) 『열하일기』 「양엽기」에는 유세기가 閩中人(福建省 출신)으로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曾孫 俞明震의 『觚庵詩存』에 의하면 본적이 浙江 紹興이었는데, 유세기가 順天 宛平으로 옮겨갔다고 한다. 유세기는 順天府學 庠生을 거쳐, 四庫全書館 謄錄과 廣東 海陽縣 丞을 지냈다.

44) 이는 『연암집』 중 「鍾北小選自序」, 「答京之」(2) 등에 피력되어 있는 연암의 持論인 문학론이다.

올라 바라보아도 하늘이 하늘다운 점을 밝혀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찌 하늘을 살펴보는 이가 모두 장님이라서 그렇겠습니까?

저는 책을 읽어도 깊은 이해를 추구하지 않고 글을 지어도 작법을 준수하지 않으며, 사람됨인즉 대범하고 거침없다 보니, 우리나라 선비 중에 혹은 저를 보고 비웃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께서 저를 정성스럽게 대해주실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제 여러 친구들을 만났더니 선생에 대해 극구 칭찬을 하는데, 선생께서 편지에서 쓰신 내용과 꼭 들어맞더군요. 그 중 어떤 친구는 직무상 일이 있어서 아직 선생을 찾아볼 겨를이 없었고, 어떤 친구는 우리 왕조(淸朝 - 인용자)의 인사들이 귀국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몇 번이나 억측을 사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을 따르지 않을 뿐더러 남에게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25일 아침에 혹시 동조자가 있으면 함께 찾아 뵙고 실컷 회포를 풀까 합니다.

청심환은 이미 삼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답장을 올리니 읽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올림. 미중(美仲) 노선생께.⁴⁵⁾

② 보내주신 안부 편지와 함께 종이와 부채와 청심환을 잘 받았습니다. 간곡하신 후의와 갖가지 우정 어린 선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요? 28일에 만나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에 아침 문안을 여쭙며, 이만 줄입니다. 세기 올림. 미중 노선생께. 27일 진각(辰刻: 오전 7시~9시).⁴⁶⁾

위의 편지들 중 ①은 8월 24일 경에 쓴 편지로 짐작된다. 여기에서 우선 유세기는, 성인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유교 문명의 중심지이자 하늘처럼 광대한 영토를 지닌 중국에 대해, 연암이 오로지 책을 통해 아는 데 만족하지 않고, 중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몸소 견문하고자 북경까지 찾아온 점을 칭송했다. 그리고 연암이 자신과 우정을 맺고 친절하게 대해 준 데 감사하면서, 청국 인사들 간에는 조선인과 교제하는 것을 꺼리는 풍조가 있지만 자신은 그에 개의치 않고 뜻 맞는 친구와 함께 8월 25일 연암을 방문하겠노라고 했다. ②는 며칠 뒤인 8월 27일에 쓴 편지인데, 연암이 보내준 선물에 감사를 표하면서 그 다음날인 8월 28일에 연암을 방문하겠노라는 내용이다.

마지막 네번 째 편지인 「하란태서」는 ‘하란태’란 이가 만주 문자로 써서 보낸 편지이다. 만주어 표기 방식에 따라 편지 본문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씌어져 있는데, ‘하란태서’라는 제목은 먼저 수록된 한문 편지들과 형식을 맞추기 위해 편지 우측에 붙였으므로, 편지 제목이 편지 말미에 붙은 특이한 모양새가 되었다. 또 만주어의 표기법은 해서체(楷書體)와 행서체(行書體: 필기체)의 두 종류가 있는데, 이 편지는 판독하기 쉽지 않

45) “藉呈朴老先生麾下。天地之大，四海之廣，何可計量？內地方千里者百，以道里相計，去都城遠者可二三萬里。語言不通者，不知凡幾。貴國雖列外邦，書同文，行同倫，較之重譯諸邦，何啻骨肉？若以儒者之教，昌于我國，千載後，人誦其詩，讀其書，未始不同于千里外之不能親炙也。先生以文字不能盡聲色情境，而求所讀於中國，先生之志則篤矣。夫文字話語의 오자言，難以盡狀。請與先生言天，管中窺天，以爲天小，固也。放目于寬閒之野，未能究天之所以爲天也。登眺于高山之巔，仍未能究天之所以爲天也。豈視天者之盡盲乎！僕讀書不求甚解。作文不准繩墨，而爲人也則落落不羈。我國之士，或見而笑之。不意足下之拳拳也。昨見諸同遊，極爲揄揚，頗契先生字札。或以職司有事，未暇往謁，或以我朝人士，罕有與貴國人交者，幾經猜度。僕既不從人，亦不之強。廿五早，或有同調者，當偕往奉拜，以盡餘情。丸已謹領，謝謝。藉此布復，伏唯清鑒。世琦頓首，上美仲老先生麾下。”

46) “辱承存問，並惠紙扇丸藥，厚意諄諄，隆情種種，何以克當？統容廿八日回謝，此候朝安。不具。世琦頓首，呈美仲老先生足下。廿七日辰刻。”

은 행서체로 씌어 있을 뿐 아니라, 필사자가 만주 문자에 능통하지 못한 경우라면 원문을 부정확하게 베껴 적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만주문 편지를 완벽하게 번역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시험삼아 직역하여 소개하고자 한다.⁴⁷⁾

당신들의
버배(bebai)⁴⁸⁾는
세 대신(大臣)⁴⁹⁾이 나에게 준 붓, 종이 등의 물품을
주었습니다.
모두 숫자대로 받았습니다. 삼가 감사드립니다.
만난 뒤에 다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마음을 써 준 홍당(洪堂: hūngtang)⁵⁰⁾에게도 감사했다고 전해주기 바란다
고 전해주소.⁵¹⁾

이는 조선 사신들이 보낸 예단을 받고 감사를 표하면서, 아울러 중간에서 주선하느라 애쓴 ‘홍당(洪堂)’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해달라고 당부한 편지로 짐작된다. 여기에 거론된 ‘홍당’은 아마도 당상역관(堂上譯官)인 수역(首譯) 홍명복(洪命福)일 것이다. 조선 사행은 북경에 도착해서 회동사역관(會同四譯館)의 제독(提督) 이하 대소 관원들에게 붓·종이 등 예단을 주는 것이 관례였다. 그렇다면 이 편지의 발신자로 적힌 ‘하란테’는 당시 회동사역관 제독이었던 만주인 ‘나란태(那蘭泰: narantai)’의 오기(誤記)가 아닐까 한다. 정사 박명원과 부사 정원시(鄭元始)가 본국에 보낸 장계를 보면, 8월 5일 북경을 떠나 열하로 갈 때 제독 나란태가 동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⁵²⁾

47) 편지의 판독과 해석은 거의 전적으로, 국내외 만주어 전문가 몇 분의 도움을 받았다. 중국 長沙 民政學院 許放 교수도 필자를 크게 도와주었다. 원문과 대조하기 쉽도록 번역문은 원문 그대로 줄 간이를 했다. 만주 문자로 된 편지 원문(사진 참조)은 알파벳으로 변환하여 각주에 소개했다.

48) 또는 ‘bepai’로 판독될 가능성도 있다. 고유명사의 音譯으로, 使行 중의 어떤 직책을 맡은 사람을 가리키는 듯하다. ‘白牌’ 즉 白牌通事를 音譯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49) ‘ilan amban’으로 판독한 부분으로, 정사·부사·서장관의 ‘三使’를 가리키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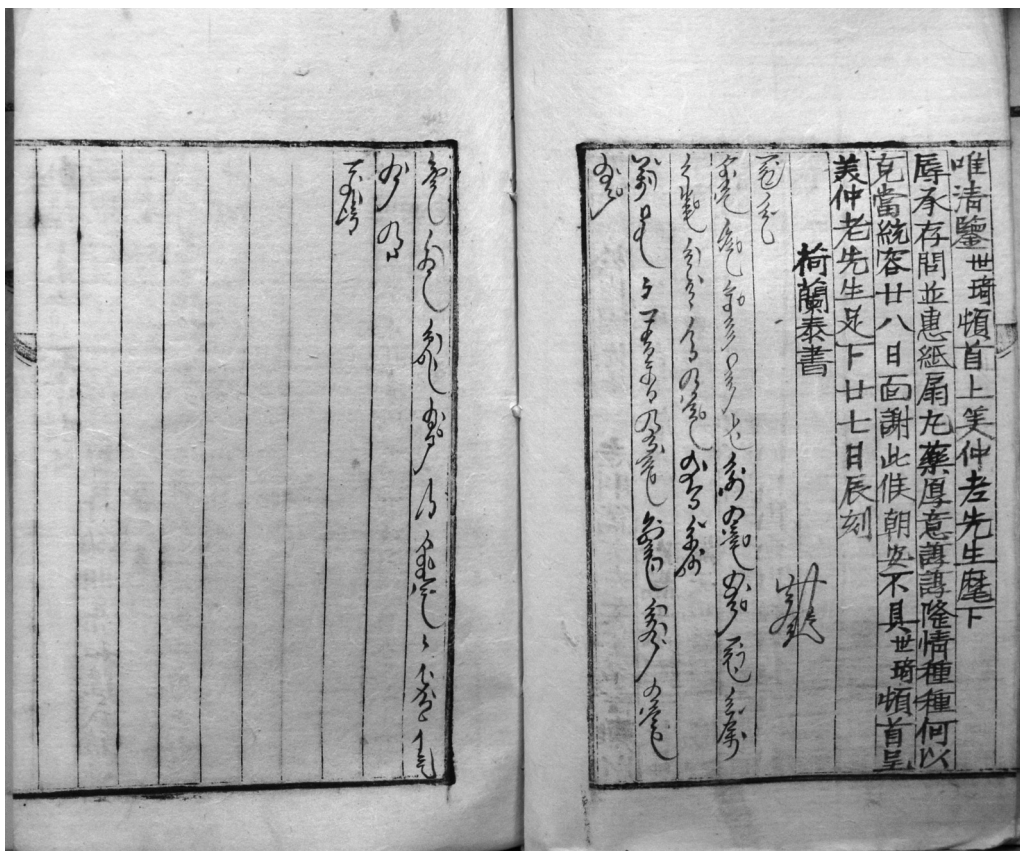
50) ‘hūng’의 ‘ū’는 음성 모음인 ‘u’와 달리 양성 모음으로, k, g, h 뒤에서 ‘오’에 가까운 음을 나타낸다. ‘tang’은 ‘堂’의 音譯이다. 堂上譯官을 호칭할 때 그의 姓과 함께, ‘朴堂’ ‘卞堂’ ‘洪堂’ 등으로 불렸다.

51) suweni
bebai
ilan amban minde buhe fi hoošan i jergi jaka
buhe,
gemu ton i songkoi bargiyaha, gingguleme mimbe baniha,
acaha manggi jai baniha buki, labdu
gūnin fayaha hūngtang de inu baniha buhe seme alareo
seme ala,

52) 『승정원일기』, 정조 4년 9월 17일, “…… 故臣等與書狀官臣趙鼎鑣, 通事三人, 從官四人, 從人六十四名, 初五日巳時, 自北京離發. 提督那蘭泰, 通官烏霖佈·朴寶樹·徐宗顯等, 亦爲隨去是白乎於.” 참고로 만주족의 성씨는 무려 600 종이 넘는데 그중 荷氏는 소수민족인 錫伯族에서 유래한 매우 드문 성씨인데 비해, 那氏는 만주족의 8대 성씨 중의 하나였다. 淸代의 지명 官人 중에 那蘭泰라는 동명이인도 여럿 있다.

조선 사행의 접대와 감독을 맡은 회동사역관의 최고위직인 제독은 만주족이 맡았다. 예부의 낭중(郎中)인 만주족 관리로 하여금 홍려시(鴻臚寺) 소경(少卿)의 직함을 겸하게 하여 회동사역관의 일을 총괄하도록 한 것이다.⁵³⁾ 『열하일기』 「막북행정록」에서 연암은 열하로 갈 때 발을 다쳐 낙오한 자신의 마두(馬頭) 창대(昌大)에게 제독이 온정을 베푼 사실을 칭송하면서, “그의 관직은 회동사역관 (제독)이자 예부 정찬사(精饌司) 낭중이요 홍려시 소경이고, 그의 품계는 정4품이며 관계(官階)는 중헌대부(中憲大夫)이지만, 나이는 예순 살에 가깝다.”고 소개하고 있다.⁵⁴⁾

이처럼 제독 나란태가 연암의 마두에게 온정을 베푼기는 했어도, 그가 연암과 직접 교분을 맺은 적은 없었다. 게다가 만주어를 전혀 모르는 연암에게 그가 구태어 한문이 아닌 만주 문자로 편지를 썼을 리도 없을 것



〈사진 1〉 『연암산고』(2) 중의 「하란태서」

53) 『清史稿』 권114, 志89, 職官1, 會同四譯館.

54) 박영철본, 『연암집』 권12, 「막북행정록」, 8월 8일, 장68앞뒤, “其官則會同四譯館, 禮部精饌司郎中, 鴻臚寺少卿. 其品則正四, 其階則中憲大夫, 顧其年則近六十矣.”

이다.⁵⁵⁾ 따라서 위의 편지는 제독 나란태가 조선 사행 중에서 만주어를 할 줄 알고 예단 전달에도 관여했을 법한 인물에게 보낸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앞서 언급한 정사 박명원과 부사 정원시의 장계에 의하면, 8월 11일 제독이 말하기를 오늘은 황제가 반드시 불러 볼 것이라고 하기에 피서산장(避暑山莊)에 나아갔더니, 황제가 “이 중에 만주어를 할 줄 아는 자가 있는가?”라고 물어, 청학(淸學) 상통사(上通事) 윤갑종(尹甲宗)이 “약간 압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⁵⁶⁾ 이로 미루어, 아마도 위의 편지는 회동사역관 제독 나란태가 윤갑종과 같은 만주어 역관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었을까 한다. 비록 연암에게 보낸 편지는 아니었지만, 만주 문자로 씌어진 대단히 진귀한 자료라고 판단해서, 연암이 이를 필사해 두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IV. 「열하궁전기」와 「단루필담」

「열하궁전기」에 대해서는 그 행방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아직 찾지 못했다. 아마도 앞서 소개한 「열하태학기」와 유사하게, 열하의 행궁인 피서산장을 소개한 기(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열하일기』 「피서록」의 서문을 보면, 강희제가 피서산장의 경승지에 세운 연파치상전(煙波致爽殿) 등 36개 전각의 명칭을 나열한 뒤 강희제의 「피서산장기」를 대폭 인용하고 있다. 「열하궁전기」는 이 「피서록」의 서문으로 대체되었거나 이와 내용상 중복되는 글이라서 『열하일기』에 수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단루필담」의 ‘단루(段樓)’는 북경의 양매죽사(楊梅竹社)에 있던 ‘段家樓(단가루)’ 즉 백고약(白膏藥)을 파는 단씨의 약방을 가리킨다. 홍대용의 벗으로 연암이 만나보고 싶어한 반정균(潘庭筠)의 집이 바로 그 맞은편에 있었다고 한다.⁵⁷⁾ 『열하일기』 「반선시말(班禪始末)」을 보면, 열하에서 북경으로 돌아온 연암이 고역생과 함께 단씨의 점포에서 술을 마실 때 고역생이 연암의 질문을 받고 판첸 라마에 관해 말하려고 하자 동석한 풍병건이 눈짓하며 만류하더라는 대목이 있다. 또 「동란섭필」에도 연암이 초팽령·고역생과 함께 단씨의 점포에서 술을 마시며 『시경』의 「소서(小序)」에 관해 토론을 벌인 내용이라든가, 연암이 단씨의 점포에서 술을 마시며 왕사정(王士禎)의 고증(考證)에 대한 이덕무(李德懋)의 비판을 소개했더니 왕사정보다 이덕무가 더 박식하다고 풍병건⁵⁸⁾이 칭송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연행을 다녀온 지 10여 년 뒤인 안의(安義) 현감 시절에 지은 「공작관기(孔雀館記)」에서도 연암은 북경 체류 중 중국 문사들과 날마다 단씨의 점포에서 술을 마시고 글을 논했던 일을 추억하였다.⁵⁹⁾

이로 미루어, 「단루필담」은 연암이 열하에서 북경으로 돌아온 뒤 단씨의 약방에서 유세기·고역생·초팽

55) 연암은 『열하일기』의 여러 곳에서 자신이 만주 문자를 모른다고 말했다(「일신수필」, 7월 21일; 「관내정사」, 8월 1일; 「환연도중록」, 8월 17일; 「구외이문」, 《武烈河》 등 참조).

56) 『승정원일기』, 정조 4년 9월 17일. 『열하일기』, 「태학유관록」, 8월 11일자 기사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57) 박영철본, 『연암집』 권14, 「피서록」, 장50앞뒤.

58) 원문에는 ‘漏明齋’로 되어 있으나, 이는 ‘馮明齋’의 오타이다. 풍병건의 호가 明齋이다(박영철본, 『연암집』 권14, 「피서록」, 장67뒤).

59) 박영철본, 『연암집』 권13, 「반선시말」, 장35뒤~36앞; 권15, 「동란섭필」, 장40앞, 장59뒤~60앞; 권1, 「공작관기」, 장18앞뒤.

령·풍병건 등과 여러 차례 만나 나눈 필담을 정리한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연암이 양매죽사사에서 유세기 등 중국 문사들과 나눈 필담의 일부는 이미 살펴본 『양매시화』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비록 만난 곳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서록」을 보면 『명시종(明詩綜)』에 수록된 연암 5대조 박미(朴瀾)의 시에 대해 유세기가 연대상의 오류를 고증하고, 전겸익(錢謙益)이 『황화집(皇華集)』에 수록된 시를 들어 조선 한시의 수준을 폄하한 데 대해 연암이 반박한 내용이라든가, 고역생·풍병건·능야가 연암에게 청나라 시인 왕평에 대해 소개한 대목들이 있다.⁶⁰⁾ 이 역시 단씨의 점포에서 필담을 통해 주고받은 시화의 일부일 것이다. 또 「동란섭필」에도 『시경』 소서에 관해 토론한 내용과, 이덕무가 왕사정의 고증을 비판한 내용뿐 아니라 연암이 예전에 이덕무의 『양엽기(養葉記)』에서 보았던 〈여자위남자관(女子爲男子官)〉조의 내용을 이야기하자 능야와 고역생이 연암의 박식을 칭찬하더라는 내용이 있다.⁶¹⁾ 이것도 「단루필담」에 수록되었을 법한 내용이라 하겠다.

일찍이 이가원 선생이 학계에 소개한 『열하일기보유』는 아마도 「단루필담」과 관련 있는 자료가 아닐까 한다. 이는 난초세자(亂草細字)로 씌어진 필사본 1책인데, 여기에는 “燕巖集補遺”라는 표제에다 “熱河日記補遺第三”이라는 작은 제목이 씌어 있었으며, 그 첫 장의 “熱河日記補遺”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박종간(朴宗侃·박종채의 初名)의 소기(小記)가 붙어 있었다고 한다.

오래된 책 상자를 열어 살펴다가 필담 초고 수백 장을 발견했으나, 난잡하게 씌어 있어 상고(詳考)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겨우 필법과 문답사건(問答事件)에 의거해서 구별할 수는 있었다. 다만 누구와 주고받은 것인지 아무런 표시가 없다. 그래서 이제 원서(元書)를 선대인(先大人: 연암-인용자)의 문답으로 하고, 한 글자 낮추어 쓴 것을 화인(華人: 중국인)의 문답으로 하는 것으로, 범례를 삼는다. 이들 종간 삼가 씀.⁶²⁾

박종채의 윗글로 짐작하건대 『열하일기보유』는 연암이 북경 양매서가의 단씨 약방에서 유세기 등과 나눈 필담, 즉 「단루필담」의 초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 표제에 『연암집』의 ‘보유’라 하고 소제에서 다시 『열하일기』의 ‘보유제삼(補遺第三)’이라 한 것은, 이 책이 『연암집』에 『열하일기』를 통합한 별집계 이본들의 「열하일기총목」 ‘보유’에서 열거한 일문의 하나라는 의미일 것이다. 다만 『양매시화』와 마찬가지로, 「단루필담」도 『열하일기』 중의 다른 편들과 중복되는 내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단루필담」에 수록되었을 법한 내용들이 『열하일기』의 「피서록」이나 「동란섭필」 등에서 적지않게 발견되는 점으로 미루어, 아마도 연암은 「단루필담」을 해체하여 그 중 일부 내용만을 『열하일기』의 다른 편들에 분산·편입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60) 박영철본, 『연암집』 권14, 「피서록」, 장52뒤~53앞, 장57앞, 장67앞뒤.

61) 박영철본, 『연암집』 권15, 「동란섭필」, 장59뒤(원문에는 『양엽기』가 『耳目口心書』로 잘못 소개되어 있다).

62) 이가원, 앞의 논문, 165~166쪽에서 재인용, “披閱舊篋, 得談艸數百頁, 雜書胡亂, 不可考。然只憑筆法及問答事件, 可得區別。但無標別某人酬酢。故今以元書爲先大人問答, 低一字書爲華人問答, 以爲凡例。男宗侃謹書。”

V. 잠정적 결론

현전하는 『열하일기』의 이본들 중 정본에 가장 가까운 별집계 필사본들은 「도강록」에서 「동란섭필」까지 모두 2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 「총목」에서는 ‘보유’라는 제하에 「천애결린집」, 「양매시화」, 「금료소초」, 「열하궁전기」, 「열하태학기」, 「단루필담」 등 6편의 제목을 소개함으로써, 『열하일기』에 미처 수록되지 못한 채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일문들이 다수 있음을 밝혔다. 본고는 최근에 공개된 『양매시화』와 『연암산고』(2) 등 새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이러한 『열하일기』 중의 일문들의 행방을 탐색해 본 것이다.

단국대 연민문고 소장 필사본인 『양매시화』는 『열하일기』 일문 중의 하나인 「양매시화」의 초고로 판단된다. 이는 연암이 북경에 체류할 때 양매죽사사에서 중국 문사들과 나누었던 필담을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열하일기』의 「피서록」이나 「구외이문」 등과 중복되는 것이 많다. 또 고염무의 『일지록』에서 전제한 기사도 상당수 있으며, 배시항의 『북정일록』처럼 시화도 아니고 필담의 일부도 아닌 자료가 뒤섞여 있기도 하다. 이로 미루어 보면, 연암은 애초에 「양매시화」편을 기획하기는 했으나, 『양매시화』의 잡다한 내용 중 일부만 발췌하여 『열하일기』의 여러 편들에 분산·편입하고 말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단국대 연민문고 소장 『연암산고』(2)에 포함되어 있는 「태학기」와 「천애결린집」은 각각 『열하일기』 중의 일문인 「열하태학기」와 「천애결린집」의 초고로 판단된다. 그 중 「태학기」는 글의 앞부분만 남아 있어 전모를 알 수 없으나, 열하의 태학에 관한 한 편의 완결된 기(記)였음에 틀림없다. 『열하일기』 「막북행정록」 8월 9일자 일기에 “따로 「승덕태학기」가 있다.”고 했는데, 이 「승덕태학기」가 바로 「열하태학기」이다. 『열하일기』는 여정을 대체로 날짜별로 기술하되, 해당 날짜의 일기에 포함하기 힘든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형식으로 독립시켜 편중(篇中) 또는 편말에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막북행정록」 8월 7일자 일기에도 “따로 「야출고북구기」가 있다.”, “따로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가 있다.”고 하고, 8월 8일자 일기에도 “따로 「만국진공기(萬國進貢記)」가 있다.”고 했는데, 이 3편의 기들은 모두 「산장잡기」편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8월 9일자 일기에 거론된 「열하태학기」도 「산장잡기」편에 수록되든가, 아니면 「막북행정록」의 편말에 배치되었을 법한 기이지, 「산장잡기」나 「환희기(幻戲記)」처럼 독립된 하나의 편은 아니었을 것이다.

『연암산고』(2) 중의 「천애결린집」은 연암이 북경에서 사귀 풍병건·선가옥·유세기의 한문 편지와 아울러, 하란태의 만주문 편지를 수록한 것이다. 하란태의 편지는 실은 회동사역관 제독인 만주인 ‘나란테’가 조선 사신의 예단을 받고 쓴 감사 편지로, 연암에게 보낸 것은 아니지만 진귀한 문헌 자료라서 수록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풍병건·선가옥·유세기의 편지 역시 대개 서적 구입 문제나 주고받은 선물과 관련된 단찰(短札)로서, 문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것들이다. 『열하일기』 「성경잡지」 7월 12일자 일기에 성경(盛京)의 상인 전사가(田仕可)가 연암과 작별하면서 준 편지 1통이 수록되어 있다. 북경에 가거든 자신의 벗인 한림원수 허조당을 만나 보라고 한 소개 편지인데, 박종채의 『과정록』에 의하면 허조당은 연암이 북경에서 사귀 중국 명사 중의 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연암은 허조당과도 편지 왕복을 했으리라 짐작되지만, 현재 전하는 편지가 없다. 이처럼 『연암산고』(2)의 「천애결린집」은 연암이 중국인들과 주고받은

편지의 극히 일부만을 수록하고 있을뿐더러 내용상 중요한 편지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과정록』에 의하면, 연암이 중국 명사들과 주고받은 편지들은 모두 잃어버려 전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로 미루어, 연암은 원래 「천애결린집」을 『열하일기』의 한 편으로 기획했으나, 관련 자료의 빈곤으로 인해 결국 『열하일기』에 편입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나 한다.

「열하궁전기」와 「단루필담」은 아직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글들이다. 「열하궁전기」는 「열하태학기」와 마찬가지로, 열하의 행궁인 피서산장에 관한 한 편의 기였으리라 짐작된다. 「단루필담」은 연암이 북경의 양매 죽사가에 있던 단씨의 백고약포에서 중국인들과 만나 나눈 필담을 정리한 것이므로, 「양매시화」와 유사한 성격의 편이었을 것이다. 일찍이 이기원 선생이 학계에 소개한 『열하일기보유』가 「단루필담」의 초고에 해당하는 필사본인지 모른다. 그러나 단씨의 점포에서 나눈 필담의 일부가 『열하일기』의 「피서록」이나 「동란섭필」 등에 수록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양매시화」와 마찬가지로 「단루필담」도 원고가 해체되어 『열하일기』의 다른 편들에 분산·편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열하일기』 중의 일문 중 오늘날 온전한 모습을 전하는 것은 「금료소초」뿐이다. 「금료소초」만은 별집계 이외의 수많은 이본들에 수록되어 있다. 별집계 이본을 저본으로 한 박영철본 『열하일기』(1932)는 조선광문회본 『열하일기』(1911)에서 「금료소초」를 전재하여 ‘보유’의 일부를 보완한 텍스트이다. 박종채는 『과정록』의 추기(追記)에서 『열하일기』가 모두 24권이라고 했다.⁶³⁾ 이는 『열하일기』가 「도강록」 이하 「동란섭필」까지 전 24편으로 구성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과정록』의 본문에서는 연암이 “『열하일기』를 저술했는데, 모두 25편이다.”라고 했다.⁶⁴⁾ 이와 같은 진술상의 앞뒤 모순은 애초에 연암이 「금료소초」를 포함한 전 25편으로 『열하일기』를 구성했으나, 연암의 사후에 『연암집』을 편찬하면서 『열하일기』에서 이를 제거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 추측된다. 이렇게 볼 때, 별집계 『열하일기』에서 진정으로 보완될 가치가 있는 일문은 「금료소초」 1편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장차 『열하일기보유』와 같은 관련 자료들이 나타난다면 수정될 여지가 있는 잠정적 결론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朴宗采, 『過庭錄』, 『洌上古典研究』 8, 열상고전연구회, 1995.

朴趾源, 『楊梅詩話』, 단국대 淵民文庫 소장.

朴趾源, 『燕巖散稿』(二), 단국대 연민문고 소장.

朴趾源, 『燕巖集』, 朴榮喆 편, 1932.

朴趾源, 『燕行陰晴』(乾), 단국대 연민문고 소장.

顧炎武, 『日知錄集釋』, 黃汝成 集釋, 上海古籍出版社, 1984.

63) 『열상고전연구』 8, 열상고전연구회, 1995, 481쪽.

64) “著熱河日記, 凡二十五編.”(『열상고전연구』 8, 열상고전연구회, 1995, 380쪽)

山東文獻集成編纂委員會 編, 『山東文獻集成』 제3집, 제44책, 山東大學出版社, 2009.

俞明震, 『觚庵詩存』, 上海古籍出版社, 2008.

徐有林·曹夢九·王照青 纂修, 『民國高密縣志』, 『中國地方志集成·山東府縣志輯 41』, 鳳凰出版社·上海書店·巴蜀書社, 2004.

『四庫全書總目』, 中華書局本.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0.

김명호, 「『열하일기』 이본의 재검토」, 『동양학』 48,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10.

김명호, 「일본 東洋文庫 소장 『연암집』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 51,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

신익철, 「연행록을 통해 본 18세기 전반 한중 서적교류의 양상」, 『태동고전연구』 25,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2010.

王振忠, 「朝鮮燕行使與十八世紀北京的琉璃廠」, 『동아시아문화연구』,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0.

이가원, 「『연암집』 逸書·逸文 및 부록에 대한 소고」, 『국어국문학』 39·40 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68.

* 이 논문은 2012년 6월 18일에 투고되어,
2012년 7월 27일에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2년 8월 1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2년 8월 17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Investigation of Lost Documents in *Yŏrha ilgi* (『熱河日記』)

Kim, Myoungcho

Currently there are a number of different editions of *Yŏrha ilgi* written by Pak Chi-wŏn (朴趾源). Among these, those that are closest to the standard text introduce six texts under the title “*Bŏyu* (補遺)”. These six texts are omitted from the current text of *Yŏrha ilgi* and need to be identified and supplemented in the future.

“*Geumryosochŏ* (金蓼小抄)”, one of the six texts, is actually preserved in various different copies of *Yŏrha ilgi*. However, the whereabouts and existence of the five other texts, “*Cheonaegyeolrinjip* (天涯結隣集)”, “*Yangmaesihwa* (楊梅詩話)”, “*Yŏrha gungjeongi* (熱河宮殿記)”, “*Yŏrha taehakgi* (熱河太學記)”, and “*Danrupildam* (段樓筆談)”, are unknown to this da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whereabouts of the lost five texts of *Yŏrha ilgi* through the discovery of new materials.

The volume entitled, “*Yangmaesihwa*”, which is housed in Yeonmin Mungo (淵民文庫) of the Dankook University Library, is thought to be a draft of “*Yangmaesihwa*”. Similarly, the volume entitled, “*Yonamsango* (燕巖散稿)” (2), housed in Yeonmin Mungo, includes drafts of “*Yŏrha taehakgi*” and “*Cheonaegyeolrinjip*”. Examination of such materials led to the conclusion that Pak Chi-wŏn originally intended to have the five texts including “*Yangmaesihwa*” in *Yŏrha ilgi* however, this intention was abandoned and only parts of the content were included in *Yŏrha ilgi*.

[Key Words] Pak Chi-wŏn (朴趾源), *Yŏrha ilgi* (熱河日記), *Yangmaesihwa* (楊梅詩話),
Yŏrha taehakgi (熱河太學記), *Cheonaegyeolrinjip* (天涯結隣集)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